

구라보 - 인터 텍스타일 상하이에서 도쿠시마 공장

가공 제품을 중점 출품

구라보(倉紡)는 2009년 10월에 중국 상하이 신 국제 전람 중심(中國 上海 新 國際 展覽 中心)에서 개최하는 국제 텍스타일 견본시(國際 textile 見本市)인 인터 텍스타일 상하이(Inter Textile 上海)에 메이드 바이 구라보(made by Kurabo)의 차별화 소재를 출품하여 관람자들에게 제안하였다.

이번 출품은 도쿠시마(德島) 공장 가공품을 ‘스타일리시 저팬 메이드 패브릭스(Stylish Japan Made Fabrics)’로 출품하여, 면·캐주얼 소재로 일본의 기술과 감성을 어필할 생각이다. 또한 독자적인 차별화 소재로서 환경 배려형 방축 양모(環境 配慮型 防縮 wool)인 ‘에코 워시(Eco-wash)’, 큐프라 섬유(Cupra 纖維)인 뵘베르크(Bemberg) 방직사를 사용한 ‘J-파이버(J-fiber)’, 전자선 그래프트 중합 가공 소재(電子線 graft 重合 加工 素材)인 ‘이브릭 방염(EBRIQ 防炎)’을 제안하였다.

이들은 모두 구라보의 방직, 직편 기술(織編 技術), 가공 기술(加工 技術)로 만들어진 소재들이다. 이번 출품에 보태어 곧 설립 예정인 중국 현지 법인을 활용하여 중국 국내 판매와 중국으로부터 구미로의 수출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상하이나 홍콩의 일본계 어패럴, 유통, 상사의 현지 생산 공장에도 어필하고 있다.♣